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왕따)과 학교폭력이 없어져야 한다.

---

이 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브리핑자료입니다.

■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왕따)과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욕이나 쌍말이 뒤섞여 있고 학교폭력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가 하면 왕따로 인해 자살까지 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요인은 가정교육의 부재, 학부모의 책무성 결여, 입시위주의 교육, 교권의 추락, 교육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게임과 인터넷 환경,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하다. 특히 오늘날 사회 환경이 아동들의 의식형성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사회는 어느 사이 법과 도덕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널리 퍼져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데모나 질서위반을 마지않는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예의와 윤리가 약화되고 최소한의 법이라고 하는 도덕까지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아이들은 사회의 이런 것을 보고 자란다. 오늘날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따와 학교 폭력의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초등학교는 또래문화가 형성되는 시기로 신체발육이 빨라지면서 폭력에 대해서도 일

찍 눈을 뜨고 있다. 이 시기에는 가정교육이 중요한데도 우리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 가정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집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통해 폭력문화를 접하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가족과 함께 얘기하거나 TV를 함께 시청하는 것조차 뺏어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홀로 게임이나 컴퓨터를 통해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폭력이나 쌍말에 익숙해진다. 이렇듯 아이들은 사회성이 길러지는 어린 단계에서 이미 폭력문화를 접하고 있다. 초등학생시절부터 언어가 황폐화 되고 이 현상이 언어폭력을 유발하고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까지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잘못된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빌고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치고 훈육한 교사를 찾아가서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왕따와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으나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가해 학생이 자기 잘못을 알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 자기 책임으로 하며 사과를 했다. 주변에서도 쌍말이나 욕설, 폭력에 대해서는 호통 치거나 훈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왕따를 시키고 가해한 학생은 자기 잘못을 알고 사과하기보다 오히려 자랑한다. 가해 학부모는 피해학생이나 학교에 사과나 용서를 빌지 않고 거꾸로 자기 자식의 잘못을 옹호하고 나선다. 주변에서도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못 본체한다. 잘못을 하고도 느끼지 못하는 학생, 자식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편을 드는 학부모의 이기적인 행태를 보면 왕따와 학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교책임이기에 앞서 부모의 문제이고 가정교육의 문제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성적위주의 압박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이를 풀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폭력으로 나타

나는 경우도 있다. 성적만 올라가면, 좋은 학교만 가면 자기 자식만 편하면 등등의 부모들의 태도가 자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식이 잘못해도 모른 체 하거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을 무시하다보니 아이들의 인성이 황폐화 되고 제대로 된 사회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이런 자세가 아이들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어른들에 대한 예의까지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문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풀기 어렵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 안전은 사회 안전의 축소판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 안과 밖의 구성원 모두가 협력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풀어가야 한다. 학교(교사, 학생, 직원), 교육기관, 학부모, 청소년 단체(NGO),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경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학교는 도덕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협동심과 다양성을 기르는

예체능 교육의 확대는 물론 각종 취미활동과 봉사활동 등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자치활동, 단체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문화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왕따 및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권을 확립하여 참 교육의 교사상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책임은 간과하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지시나 지도를 무시하는 전교조의 일부 교사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바른 교사상을 세워 갈 수 있다.

학부모 역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부이기는 하나 젊은 부부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거실에 TV를 치워버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나아가 학교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상담 자원봉사 등의 참여를 통해서

아이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큰 소리치는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 학부모가 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NGO나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여 처리해 나가야 한다. [끝]